

## 미 증시, 대형 은행들의 퍼스트 리퍼블릭 지원 발표에 상승 확대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 미 증시 동향: 은행주 우려 완화 소식에 상승 전환 후 폭 확대

•미 증시는 CS에 대한 스위스 중앙은행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역 은행들의 급락이 이어지며 하락 출발. 한편, 50bp 금리인상을 단행한 ECB가 은행에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고, 35% 급락하던 퍼스트 리퍼블릭(+9.98%)에 대한 미국 대형 은행들의 지원 발표 후 금융주의 강세로 상승 전환. 더불어 금융시장 혼란으로 안전한 대형 기술주와 연준 통화정책 변화 기대로 반도체 등 기술주의 힘으로 상승폭 확대 마감(다우 +1.17%, 나스닥 +2.48%, S&P500 +1.76%, 러셀2000 +1.45%)

### 특징 종목: 대형 기술주, 반도체, 금융주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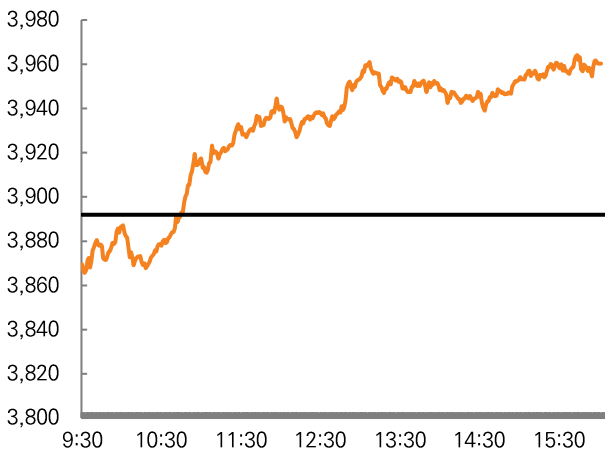
•퍼스트 리퍼블릭(+9.98%)은 유동성위기 우려로 초반 35% 급락했으나, 대형 은행들의 최대 300억 달러 지원 발표에 급등세로 전환. 피치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리자 급락했던 웨스턴 얼라이언스(+14.10%)도 안정을 찾으며 급등. MS(+4.05%), 알파벳(+4.38%), 아마존(+3.99%), 애플(+1.87%) 등 대형 기술주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수혜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알파벳은 유튜브TV 가격 인상 발표도 영향. 엔비디아(+5.42%), AMD(+7.72%), 마이크론(+4.51%) 등 반도체 업종과 더불어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기대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 한국 증시 전망: 심리 안정 속 대형주 중심 강세

•MSCI 한국 지수 ETF는 3.05%, MSCI 신흥 지수 ETF는 1.5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9.18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5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18% 상승. KOSPI는 1%대 상승 출발 예상.

•미 증시가 여전히 금융주 중심으로 변동성을 확대했으나, 대형 은행들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한편, ECB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연준의 3월 FOMC에서도 25bp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결국 시장이 우려했던 50bp 금리인상 가능성이 사라진 가운데 열린 장관의 발언 등을 토대로 대량 인출 사태 등이 없다는 점, 그로 인해 미국의 경착륙 가능성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 그렇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이어 유럽도 원자재법 발표해 일부 업종에는 부담. 이에 힘입어 한국 증시는 1%대 상승 출발 후 대형주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종 차트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377.91	-0.08	상해종합	3,226.89	-1.12
KOSDAQ	781.98	+0.10	홍콩항셱	19,203.91	-1.72
DOW	32,246.55	+1.17	베트남	1,047.40	-1.39
NASDAQ	11,717.28	+2.48	유로스톡스 50	4,116.98	+2.03
S&P 500	3,960.28	+1.76	영국	7,410.03	+0.89
캐나다	19,539.01	+0.83	독일	14,967.10	+1.57
일본	27,010.61	-0.80	프랑스	7,025.72	+2.03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 ①은행주 강세 원인 ②ECB 통화정책 회의 의미

CS 문제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자 스위스 중앙은행이 최대 500억 스위스 프랑을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CS 사태가 완화. 더불어 무디스도 스위스가 CS 사태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으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발표해 관련 우려 완화에 긍정적. 더 나아가 전일 사우디 국립은행 회장이 최근 CS의 패닉은 ‘부적절하다’ 고 언급한 점도 영향.

그렇지만, 250억 달러 규모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퍼스트 리퍼블릭(+9.98%) 은행이 장 초반 35% 급락하는 등 여전히 미국 지역 은행들의 문제가 진행. 이 소식에 여타 지역 은행들의 급락이 이어지며 미 증시 장 초반 부진을 야기. 그렇지만, 대형 은행들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는 등 유동성 확보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을 뒤로 하고 급등으로 전환. 이에 힘입어 여타 대형 금융주는 물론, 지역 은행들도 안정을 찾으며 상승 전환하는 등 변화 확대. 여기에 열린 재무장관이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예금 안전을 확신해도 좋다고 주장하며 심리 안정에 영향.

한편,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의 3.0%에서 3.5%로 50bp 인상. CS 사태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 ECB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발표. 실제 ECB는 2023년 평균 인플레이션을 지난 12월보다 높은 5.3%로 전망. 다만, 경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노동시장, 경기 개선에 대한 자신감, 실직 소득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는 성장률 1%, 2024년과 2025년에는 1.6%를 기록하며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라가르드 ECB 총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다고 주장. 특히 중국의 경제가 더욱 강력해지면 원자재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언급. 한편, 금융시장 긴장이 극도로 높아져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은행주들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 줌. 더불어 필요하다면 금융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 이런 불안에도 장기적인 시장 우려는 최근 불안보다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단행했다며 인상의 정당성을 주장.

한편, 이번 회의 금리 결정 논의에서 의견은 기존 전망했던 50bp와 금리 동결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대다수 위원들이 인상을 주장했다고 발표. 이러한 ECB의 결정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유럽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 미국의 국채 금리도 퍼스트 리퍼블릭 지원과 함께 ECB의 통화정책 영향으로 급등. 특히 CME FedWatch에서는 3월 FOMC에서 25bp 금리인상 확률이 80%를 넘어서는 등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다만, 최고금리는 여전히 12월 연준이 발표한 5.1%를 하회한 4.9%를 기록해 3월 한 번의 금리인상 이후 연준의 금리 동결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여전히 진행 중.



## 대형 기술주, 반도체 업종 강세 Vs. 태양광 부진

퍼스트 리퍼블릭(+9.98%)은 유동성위기 우려 속 장 초반 35% 급락했으나, 대형 은행들의 최대 300억 달러 지원 발표에 급등세로 전환. 피치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리자 급락했던 웨스턴 얼라이언스(+14.10%)도 관련 소식에 안정을 찾으며 급등. 더불어 이스트 웨스트(+2.94%), 키코프(+4.51%) 등 지역은행은 물론 JP모간(+1.94%), BOA(+1.68%), 씨티그룹(+1.78%) 등 대형 은행주들도 강세.

스냅(+7.25%)은 미 정부가 중국 창업자들이 보유한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미국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종인 유아이패스(+17.62%)는 예상을 크게 상회한 실적 발표 후 급등. 어도비(+5.90%)는 전일 건조한 실적 발표로 상승한 가운데 세일스포스(+2.40%), 서비스 나우(+4.77%) 등 소프트웨어 업종도 동반 상승.

MS(+4.05%), 알파벳(+4.38%), 아마존(+3.99%), 애플(+1.87%) 등 대형 기술주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수혜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알파벳은 유튜브TV 가격 인상 발표도 영향.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5.42%), AMD(+7.72%), 마이크론(+4.51%) 등 반도체 업종과 더불어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기대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달러 제너럴(-2.96%)은 예상을 하회한 실적을 발표하자 하락. EC가 중요 원자재법을 발표해 역내 원자재 이용을 늘려야 한다고 발표하자 중국 이용이 많은 솔라에지(-6.81%), 징코솔라(-4.75%), 선련(-3.36%)등 태양광 업종은 부진.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75	대형 가치주 ETF (IVE)	+1.64
클린테크 ETF (CTEC)	+0.53	중형 가치주 ETF (IWS)	+1.25
소매업체 ETF (XLY)	+1.81	소형 가치주 ETF (IWN)	+1.30
온라인소매 ETF (EBIZ)	+1.12	대형 성장주 ETF (VUG)	+2.46
미국 인프라 ETF (PAVE)	+1.34	중형 성장주 ETF (IWP)	+1.62
핀테크 ETF (FINX)	+2.23	소형 성장주 ETF (IWO)	+1.46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3.3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1.41
클라우드 ETF (CLOU)	+1.60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8
사이버보안 ETF (BUG)	+1.04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1.09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2.22	미국 국채 ETF (IEF)	-0.90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33	하이일드 ETF (JNK)	+0.66
바이오섹터 ETF (IBB)	+0.54	신흥국 채권 ETF (EMBD)	-0.86
로봇&AI ETF (BOTZ)	+3.58	물가연동채 ETF (TIP)	-1.13
반도체 ETF (SMH)	+4.00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15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IT	2,503.80	+2.82	+3.94	+1.45
커뮤니케이션	183.43	+2.77	+5.92	+1.28
경기소비재	1,111.48	+1.88	+2.63	-4.92
금융	530.05	+1.87	-4.67	-12.24
산업재	828.48	+1.27	-2.65	-4.25
소재	481.41	+1.17	-4.11	-6.88
헬스케어	1,481.54	+0.96	+1.85	-2.73
에너지	593.72	+0.94	-6.91	-11.20
유틸리티	341.20	+0.67	+3.24	-0.65
부동산	231.63	-0.06	-0.93	-7.37
필수소비재	755.19	-0.07	+1.43	-0.61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심리 안정 속 대형주 중심 강세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3.05%, MSCI 신흥 지수 ETF는 1.5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99.18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5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18% 상승. KOSPI는 1%대 상승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CS 사태가 커지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자 1% 넘게 하락 출발하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임. 그렇지만, 장 초반 스위스 중앙은행이 CS에 대해 최대 500억 스위스 프랑을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낙폭을 축소하며 한 때 상승 전환하는 힘을 보여줌. 특히 대형주들의 강세가 뚜렷. 이 영향으로 KOSPI는 0.08% 하락했으나 KOSDAQ은 0.10% 상승.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여전히 금융주 중심으로 변동성을 확대했으나, 대형 은행들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특히 대량 인출이 크지 않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과 함께 열린 재무장관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안정적이라고 발표하는 등 심리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며 장 후반 상승폭을 더욱 확대한 점도 긍정적.

한편, ECB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연준의 3월 FOMC에서도 25bp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결국 시장이 우려했던 50bp 금리인상 가능성이 사라진 가운데 열린 장관의 발언 등을 토대로 대량 인출 사태 등이 없다는 점, 그로 인해 미국의 경착륙 가능성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

더불어 시장은 연준의 최고 금리를 지난 12월 발표보다 하향해 3월 금리인상 이후 금리 동결 기조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금리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그렇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이어 유럽도 원자재법 발표해 관련 수출이 많은 국내 일부 업종에는 부담. 이에 힘입어 한국 증시는 1%대 상승 출발 후 대형주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고용, 주택 지표 개선

미국 2월 주택 착공 건수는 지난달 발표된 132.1만 건이나 예상치인 131.5만 건을 상회한 145만 건을 기록했으며 착공 허가 건수는 133.9만 건을 크게 상회한 152.4만 건을 기록.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 발표된 21.2만 건이나 예상치인 20.5만 건을 하회한 19.2만 건을 기록. 4주 평균은 19만 7,250건 보다 감소한 19만 6,500건으로 발표

3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24.3보다 개선된 -23.2로 발표됐으나, 예상치인 -15.87을 하회.

미국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4% 하락이나 예상치인 0.2% 하락보다 높은 0.1% 하락에 그침. 전년 대비로는 0.9% 상승에서 1.1% 하락으로 전환해 향후 물가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국채 금리, ECB 금리 인상 등으로 급등

국제유가는 은행주 우려가 완화되며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 이에 힘입어 상승. 더불어 사우디 에너지 장관과 러시아 부총리가 사우디에서 시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논의했다는 소식도 상승 요인. 미국 천연가스와 유럽 천연가스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그런 가운데 목재 가격이 26%나 폭등했는데 지난해 가격 급락으로 생산량을 줄였고, 여기에 주택 지표가 개선되자 향후 수요 증가 기대가 높아진 점이 영향.

달러화는 ECB가 금리를 50bp 인상하자 유로화의 강세로 약세. 더 나아가 대형 은행들의 지역 은행 지원 소식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위축된 점도 달러 약세 요인. 엔화도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자 약세. 유로화는 ECB의 금리인상과 유럽 경제 전망 상향 조정 등으로 달러 대비 강세.

국채금리는 ECB가 금융시장 혼란에도 높은 인플레이를 감안 50bp 금리인상을 단행하자 연준의 행보 또한 이러한 추이를 따라 갈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 특히 대형 은행들의 지역은행 지원 발표로 관련 우려가 완화된 점도 상승 요인. CME FedWatch는 3월 연준의 FOMC에서 25bp 금리인상 확률에 대해 80%로 전망.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 감소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 등으로 상승. 곡물은 다음 주 아르헨티나에 비가 올 것이라는 소식과 옥수수 대두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소식 등이 유입되며 변동성을 키웠으나, 결국 밀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옥수수는 수출 수요 증가 소식에 상승. 다만, 그 폭은 제한된 가운데 보험권 등락에 그침.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66%, 철근은 0.73%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8.35	+1.01	-9.81	Dollar Index	104.434	-0.20	-0.83
브렌트유	74.70	+1.34	-8.47	EUR/USD	1.0616	+0.37	+0.33
천연가스	2.51	+3.40	-0.83	USD/JPY	133.76	+0.25	-1.76
금	1,939.70	-0.41	+4.79	GBP/USD	1.2115	+0.48	+1.59
은	21.69	-0.35	+8.13	USD/CHF	0.9294	-0.42	-0.34
알루미늄	2,267.50	-0.42	-2.60	AUD/USD	0.6659	+0.60	+1.05
전기동	8,518.00	+0.16	-3.78	USD/CAD	1.3717	-0.37	-0.80
아연	2,857.50	-0.30	-3.92	USD/RUB	77.5484	+1.42	+2.19
옥수수	632.75	+0.88	+3.35	USD/BRL	5.2265	-1.18	+1.19
밀	699.00	-0.71	+4.81	USD/CNH	6.8957	+0.05	-1.17
대두	1,491.50	+0.08	-1.34	USD/KRW	1,313.00	+0.71	-0.70
커피	180.05	+4.32	+2.86	USD/KRW NDF1M	1,299.18	-0.87	-1.83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573	+11.85	-32.99	스페인	3.383	+12.10	-26.20
한국	3.400	-2.00	-32.00	포르투갈	3.212	+12.40	-28.30
일본	0.315	-1.40	-19.10	그리스	4.293	+6.10	-12.50
독일	2.290	+16.00	-35.30	이탈리아	4.188	+7.70	-20.1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